中 항저우 亞게임 코로나로 연기

OCA 공식 발표…청두 U대회도 2023년으로 미뤄질 듯

올해 여름과 가을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종합스포츠대회인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하계 아시안게임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됐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중국올림픽위원회(COC),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HAGOC), OCA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올해 9월 10~2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기로 한 19회 하계 아시안게임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이어 "아시안게임의 새로운 대회 개최 날짜는 OCA, COC, HAGOC의 동의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CA는 항저우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잘 준비해왔지만, 이번 대회 이해당사자들이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과 대회 규모를 신중하게 고려해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OCA의 발표 직후 대학생 스포츠인들의 축제인 동·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주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도 오는 6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할 예정인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2023년으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유니버시아드는 원래 격년으로 열리지만,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번 청두 대회만큼은 2년 연속 연기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았다.

애초 청두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2021년 4월에 열 계획이었다가 코로나19 탓에 도쿄올림픽의 일정이 1년 미뤄진 2021년 7월로 조정되면서 2022년 6월 26일로 1년 연기됐다.

이번에는 뒤늦게 터진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2023년으로 밀렸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OCA는 이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형식의 집행위를 열어 아시안게임을 연기하고 OCA와 HAGOC가 구성하는 아시안게임 태스크포스(TF)에 새 대회 기간을 결정하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1년 늦춰 2023년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한 달 넘게 지속하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청두 유니버시아드가 연기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나왔다.

HAGOC는 지난달 초만 해도 경기를 치를 56개 경기장을 완공하고 대회에 앞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테스트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감당하지 못했다.

중국 정부와 OCA 45개 회원국은 참가국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1년 연기를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계 아시안게임은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연기된 2020 도쿄하계올림픽의 사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촌을 덮친 2020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는 그해 7월에 열기로 한 도쿄 하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출범해 195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회 대회부터 4년 주기로 짝수 해에 열리는 하계 아시안게임이 연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2년8개월 걸렸다…조아연 KLPGA 3승

교촌 허니 레이디스오픈 우승
14언더로 이가영 4타차 따돌려

이가영이 8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제8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오픈 최종라운드 3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아연(22·사진)이 2년 8개월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우승 트로피를 품었다.

조아연은 8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 골프클럽(파72·6624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제8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오픈(총상금 8억원)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기록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02타의 성적을 낸 조아연은 10언더파로 단독 2위에 오른 이가영(23)을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019년 4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과 같은 해 9월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하며 그해 신인상을 받았던 조아연은 2년을 훌쩍 넘게 '무관'으로 지내다가 이번 대회에서 오래 기다린 3승을 달성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1억4400만원이다.

올해 개막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갤러리가 없었던 2020년과 2021년이 힘들었다"며 갤러리 입장이 재개되는 올해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조아연은 올해 네 번째 유관중 대회에서 우승 약속을 지켰다.

1라운드 단독 선두, 2라운드 공동 선두 등 대회 내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조아연은 챔피언조에서 경기한 이가영과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였다.

2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였던 둘은 조아연이 10번부터 12번 홀까지 3연속 버디를 잡아내자 이가영 역시 9번부터 12번 홀까지 4연속 버디로 응수하는 등 팽팽하게 맞섰다.

3번 홀(파3) 칩인 버디로 기분 좋게 최종 라운드 초반을 시작한 조아연이 1타 차로 앞선 상황에서 이가영이 13번 홀(파3) 약 4m 파 퍼트를 놓치면서 조아연과 격차가 2타로 벌어졌다.

승부가 갈린 것은 16번 홀(파4)이었다.

2타 차로 1, 2위를 달리던 조아연과 이가영의 두 번째 샷이 모두 그린 앞 벙커에 빠졌다.

먼저 이가영의 벙커샷이 다소 길게 맞아 홀 10m 정도 거리에 놓였고, 조아연은 홀에서 약 5m 정도로 벙커샷을 보냈다.

이가영의 파 퍼트는 다소 짧아 1타를 잃은 반면 조아연은 만만치 않은 거리의 파 퍼트를 넣고 3타 차로 달아났다.

17번 홀(파3)에서는 3타 차 리드를 잡은 조아연이 10m 정도 긴 버디 퍼트를 넣고 4타 차를 만들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지난주 메이저 대회 KLPGA 챔피언십에서도 단독 2위였던 이가영은 2주 연속 준우승 성적을 냈다.

2019년부터 정규 투어에서 활약한 이가영은 아직 우승 없이 준우승만 네 번째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 상금과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부문 1위 유해란(21)이 9언더파 207타, 단독 3위에 올랐다.

2라운드까지 조아연, 이가영과 함께 공동 선두였던 이다연(25)은 이날 2타를 잃고 7언더파 209타,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한국 사격 남매 해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김고운, 여자 공기소총 10m 銅
동생 김우리, 남자 공기소총 10m 은메달 획득 경사

2021 카시아스두술 데플림픽

2021카시아스두술데플림픽(청각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한 한국의 사격 남매가 나란히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고운(27·전남장애인체육회·사진)은 6일(한국시간) 브라질 카시아스두술의 카시아스 헌팅앤드슈팅클럽에서 열린 대회 사격 여자 공기소총 10m 결선에서 223.8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날 동생 김우림(24·보은군청)이 남자 공기소총 10m에서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누나도 시상대에 올랐다.

광주 출신인 김고운과 김우림은 남매 사격 선수다. 김고운은 전남장애인체육회 사격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그는 이번 대회 공기소총 10m 2위, 50m 소총복사, 소총 3자세 50m에서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유망주다.

어릴 때 열병으로 청력이 떨어진 김고운이 먼저 사격을 시작했고, 청각장애를 지닌 세 살 터울의 김우림이 뒤를 따랐다.

첫 데플림픽에서 누나의 응원을 받으며 은메달을 획득한 김우림이 이날은 뒤에서 김고운의 경기를 지켜봤고, 동메달이 확정되자 "정말 잘했다"며 누나를 끌어안았다.

김고운은 2017년 삼순 대회에 이어 두 번째 데플림픽에 출전했다.

삼순에선 공기소총 10m 4위로 메달을 놓쳤고, 50m 소총복사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공기소총 10m 동메달로 5년 전의 아쉬움을 털어낸 김고운은 경기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감을 밝혔다.

먼저 동생을 떠올린 그는 "우림이는 이번 데플림픽 국가대표로 어렵게 선발돼서 그런지, 누나인 내가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다. 이번 은메달이 다른 것들보다 더 값지고, 동생이 잘해줘 기특하고 정말 고마웠다"고 했다.

이어 "나는 터키 삼순 데플림픽때 공기소총 종목에서 아쉽게 4위로 마무리한 적이 있었다. 오늘 결선에서 4위 결정전을 하는 동안 삼순에서의 기억이 많이 났다"며 "솔직히 말하자면 긴장도 안됐고 기대가 없었던 종목이라 내 것만 잘하자 하는 심정으로 한 발씩 쐈다"고 설명했다.

남매가 함께 메달을 따낸 건 더없이 기분 좋은 경험이다.

김고운은 "동메달로 마무리한 후에 속이 조금 후련했다. 우림이가 정말 잘했다면서 안아줬는데, 이런 기쁨과 색다른 경험들이 선물 같은 느낌이었다. 한편으로는 '우림이랑 나, 팀킴 남매가 메달을 안고 한국으로 갈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 남매는 데플림픽을 넘어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한다.

한편, 한국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금메달 2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로 종합 6위를 유지하고 있다.

1위는 금메달 24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3개를 따낸 우크라이나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전남 유도, 전국대회 선전

청풍기전국유도, 장석진 금메달 등 금1·은2 획득

전남 유도가 전국대회에서 선전했다.

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 유도 선수들이 지난 3~7일까지 충북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청풍기전국유도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장석진(여수시청·사진)은 남자일반부 개인전 -60kg급 결승에서 박성영(부산시청)을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그는 연장전에서 절반(어깨로 메치기)으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김혜미(순천시청)은 여자일반부 개인전 -70kg급 결승에서 박예린(충북도청)에 한판을 내주고 은메달을 획득했다.

신지영(순천시청)도 개인전 +78kg급 결승에서 엄다현(부산 북구청)에게 지도패,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장원 여수시청 감독은 "장석진 선수가 지난번에 이어 연속으로 메달획득에 이어 이번엔 금메달을 획득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좋은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2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배드 가이즈
3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배드 가이즈, 극장판 엉덩이 탐정: 수플레 섬의 비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4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5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앵커
6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토르: 마법 검의 전설
9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7관 씨네커플	극장판 엉덩이 탐정: 수플레 섬의 비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서울괴담
8관 씨네커플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공기살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Ⅲ
Brahms's
일시 : 2022.06.03.(금)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524-5086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5.03.(화)~31.(화)
매주 화요일 ~ 토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